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회장으로 보낸 한 해

박상희 회장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낸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여러 차례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인여성회 회장이라는 일을 통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멋지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사들과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뿐 아니라 회원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이 한인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팀의 일원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탁월한 봉사를 하는 한인여성회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회의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것은 제54회 유엔 여성인권위원회에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행사 참석은 훌륭한 교육적인 경험도 되었지만 한 방울 쓴 다른 이사님들과 친해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회의 참석 후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선단체를 회복하여 자축하였고 또 새 이민자를 위한 탁월한 봉사를 인정받아 온타리오 주 이민부로부터 '2010 Newcomer Championship Award'도 수상하였습니다. 연이은 좋은 소식으로 인해 한인여성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여성회의 회장직에 자원했을 때 저는 우리 한인사회에 뛰어들어 좋은 목적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여한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한인여성회 관계자들이 저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회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볼 때 저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한인 동포사회의 더욱 많은 분들이 한인여성회와의 인연으로 이러한 풍요로움을 경험하시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차 례



그리며 생각하며

제 4회 KCWA 미술·서예 전시회

2010년 10월 12일 (화)~ 15일 (금)

- ♣ 오프닝 리셉션: 2010년 10월 12일(화) 오후 6시
- ♣ 장소: 충영사관 갤러리(555 Avenue Rd. Toronto)
- ♣ Gallery Hours: 화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5시

1 면	회장 회고
2 면	여성회 소식
3~4 면	직원 단상
5~8 면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9 면	프로젝트 소개
10~11면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12 면	알고싶어요/재정지원/여성회의 사명

기본 소식

♣온타리오주 자원봉사상 수상

2010년 6월 17일, 온타리오주 자원봉사상 시상식이 열렸다. 온타리오주 자원봉사상은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한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최소 5년부터 최대 60년동안 한 기관에서 봉사를 하였을 경우 자원봉사를 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된다.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에서는 총 6명의 이사들이 온타리오주 자원봉사상을 수상하였다.

- ▲최성학 이사 (봉사기간: 20년)
- ▲신복실 이사 (봉사기간 15년)
- ▲안귀란 이사(봉사기간 10년)
- ▲최경애 이사 (봉사기간 5년)
- ▲Linda Yoo (봉사기간 5년)
- ▲Hazel Moon (봉사기간 5년)



온타리오주 자원봉사상에서는 에릭 홉킨스 온타리오주 이민장관이 직접 시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Newcomer Champions 수상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온타리오 이민부로부터 'Newcomer Champions' 상을 수여받았다. Newcomer Champions 상은 신규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고 다민족문화의 정착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07년 온타리오주 이민부에서 처음 제정한 상이다.

6월 25일 토론토 웨스턴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캐나다 한인여성회가 온타리오주 전체에서 선정된 또 다른 2개 봉사단체와 함께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기 총회 소식

한인여성회 26회 정기 총회가 지난 7월 19일 저녁 6시 노스록 시빅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와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관계자들과, 한인여성회 이사, 직원 및 회원, 자원봉사자등 총 1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여성회가 온타리오 이민성에서 받은 Newcomer Champion Award 상을 수여하고 한인여성회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특히 정기 총회에서는 한인여성회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 53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이 수여 되었고 또한 8명의 학생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자전거를 수여하는 증정식이 이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새임원진 선임등 올해 한인여성회의 주요 안건 채택과 전년도 회의록 인준, 김동균 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 현 이사 및 직원 소개 등의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3부 행사에서는 한인여성회의 25주년을 마감하고 자선단체 회복을 축하하는 리셉션 순서가 이어졌다. 더불어 한인여성회 서예, 미술, 뜨개질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앞으로도 이민자들의 건강한 가정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직원 단상

또 다른 나의 시작

과도기 주거 및 지원 상담

장영

저와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인연은 2010년 1월, 자원봉사자로서 컴퓨터 강의를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시작하는 방법부터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설명하며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즐거웠고 한인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만나는 것도 반가웠습니다.

올 4월 경에 한인여성회에서 정착상담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내 평생에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을까? 사회복지를 배워본 일이 없는데, 캐나다의 제도를 깊이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 물어 보며 며칠을 망설이다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정착하면서 경험했던 것에 더해 열심히 배워서 지식을 쌓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모아진 지식에 클라이언트 한 분, 한 분의 케이스를 처리한 경험이 더해지면, 곧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도 고안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인여성회의 일원이되어, 제가 맡은 일은 과도기 주거 및 지원 상담업무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단위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단위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고 생각해 보지만 그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모든 집의 김치 맛이 다르듯, 모든 가정은 그 가정의 독특한 사정이 있고, 그 가정 고유의 분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껏 저는 저의 가정만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한달 동안 만난 클라이언트 분들의 사정은 저의 가정과 닮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 분들이 슬기롭게 해결책을 찾아 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아드리고, 언어가 문제가 되면 통역도 해드리고,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 연결해 드리면서 그 분들의 가정이 행복해 지기를 기원합니다.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은 그려볼 수는 없지만, 가정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폭력이 없어야 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야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가정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확보하도록 캐나다의 법과 사회제도, 사회단체, 자선단체들이 제공하는 혜택이 많습니다. 가정 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여성들이 법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찾고, 여러 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며, 열심을 다해 배우고 일합니다.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찾아가는 서비스

- 리치몬드힐: H-Mart 문화센터
- 쏘힐: 갤러리아, 한국식품 문화센터
- 노스욕: 신한은행, DUCA 세미나실
- 다운타운: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본관
- 미시사가: 한국식품 문화센터

직원 단상

나비가 FEM으로 다시 태어나기 까지

FEM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조현주

참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3년 전 우연한 기회에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 후 무작정 이들 여성들을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는 열정만으로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2007년 캐나다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될 때에 만났던 장점돌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속의 삶이 결코 동떨어진 다른 여성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현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여성폭력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70년 전에 한국의 어린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함,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이름의 여성폭력들을 돌아보아 우리 후세들은 결코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나비 여성 네트워크가 소규모의 그룹의 한인여성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캐나다 한인 여성회와의 여러 의논 끝에 여성회 산하의 한 FEM (Free and Empower Me) 프로젝트로 새로이 시작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성회 산하에 들어와서 머리 속에만 들어있던 계획들을 종이에 옮기고, Status of Women Canada라는 연방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되고, 동료지도자 훈련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한인 여성회라는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의 열정을 배우면서, 동료지도자 훈련은 차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홍보하는 것이 낯선 일도 아닌데 한창 이것 저것 많은 것에 관심이 있을 젊은 층의 한인 여성들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이 있었다면 제 아이들이라도 동원을 할 텐데 아들만 둔덕에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에게 설명을 하고, 아는 분들의 딸들에게 등록을 권유하고, 교회 소식시간에 광고 말씀을 부탁하여 어렵사리 2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동료지도자 훈련을 시작할 날이 왔습니다.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친구들을 맞이하였고, 정말로 감사하게 무사히 첫 훈련을 마쳤습니다.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이상입니다. 참가했던 친구들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그들도 예상외로 재미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린 친구는 엄마가 등록을 미리 해놓고 가라고 해서 폭력이니 여성문제니 뭐 그런 재미없는 얘기만 잔뜩 듣고 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직접 체험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재미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다음 훈련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고 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난 그날 저녁에 한 친구는 Facebook에 메시지를 남기길, 건강한 이성관계와 여성폭력 사례라는 훈련을 받았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하니 친구들이 조언을 구해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보람도 느낍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 길을 온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겠지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을지, 또 다른 어떤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차 훈련에 참석하고 졸업한 15명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작게 시작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그들의 미래는 더 건강하고 밝기를 희망해 보면서 다음 주에 다시 있을 2기 훈련의 준비를 위해 일자리로 돌아갑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보람도 느낍니다.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가정 프로그램

♣건강한 가정 지킴이- 가정폭력예방 프로젝트

3월 20시간의 훈련을 마친 동료지도자들이 커뮤니티에 나아가 자신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예방 워크숍을 주관하고 진행하였다. 동료지도자들은 커뮤니티 워크숍을 직접 주관하고 진행함으로써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게 되었다. 또한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곤경에 처한 이웃을 대하여 더욱더 워크숍의 중요성을 느꼈다.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정기 모임과 활동을 통해 폭력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이 새롭게 바뀌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5월부터 7월까지의 동료지도자 활동은 다음과 같다

총 실시횟수	총 진행 시간	총 참가자 수
9회	16.5시간	106명

♣셀프헬프그룹 모임

셀프헬프그룹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서로 돕는 모임으로 매월 1회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번 기간중에는 중국 만두 만들기, 경청의 기술 익히기, 영화를 통한 영어 익히기 및 효과적인 대화법 익히기 등이 있었고, 특별히 7월에는 30명의 회원과 자녀들이 피크닉에 참석해 캐나다의 자연속에서 바베큐를 즐기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 모임

매월 1회 자녀를 위한 부모 모임에서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효과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최신 정보로 새롭게 보완된 교육정보를 배움으로써 새로운 캐나다 교육제도를 익히고 있다. 아울러 자녀와의 대화법과 캐나다식 양육법을 익힘으로 문화가 다른 이민생활에서 오는 자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마음이 되어 서로를 배려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4월 자녀와의 대화법과 부부/파트너와의 대화법에 관한 워크숍을 열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 나의 상

황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앞으로의 바람을 제시하는 나 중심 대화법 (I-Message)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캐나다에서 일등아빠 되기

5월 4회에 걸쳐 '일등 아빠 되기' 워크숍을 열었다. 자존감을 세우고, 스트레스 관리 및 분노조절 방법을 익혀 먼저 아버지 자신의 행복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반석이 됨을 인식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대화법과 간단한 요리법을 배움으로써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으로 부터 존경 받는 아버지가 되도록 도모하였다

♣여름철 건강 관리

6월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워크숍은 캐나다 보건성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모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절의 변화에 건강하게 대처하는 식생활과 피부관리로 캐나다 여름을 건강하게 즐기며 가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였다.

♣성인 영어교실

성인 영어 교실은 영어를 사용하는 자녀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꿈꾸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기본 영문법과 기초회화를 공부하는 영어클래스이다.

1년 과정으로 지난 1월 7일에 첫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한인여성회에서 진행되었다.

♣캐나다 법률 정보 세미나 - 자녀양육권과 자녀부양비

6월 법률정보 세미나를 통해 캐나다 가정법에 따른 자녀 양육권과 자녀 부양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양육권, 면접권, 부양비, 부양비 산정 근거와 FRO (Family Responsibility Office)를 소개함으로써 양육권 취득에서 부터 양육비를 받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가정법 차이를 알도록 도모하였다.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KCWA 캐나다 한인 여성회 취업 프로그램

‘2010 KCWA 취업 박람회’를 마치고



지난 6월에 개최한 2010 KCWA Job Fair 한인여성회 취업박람회는 KCWA 취업팀이 지난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마련한 한인 동포를 위한 KCWA에서 개최한 첫 취업박람회였다.

지난 몇 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경제 불황의 여파는 아직도 한인 동포들의 취업 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KCWA는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보다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취업 찾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한인동포들에게 직접적인 취업 도전 기회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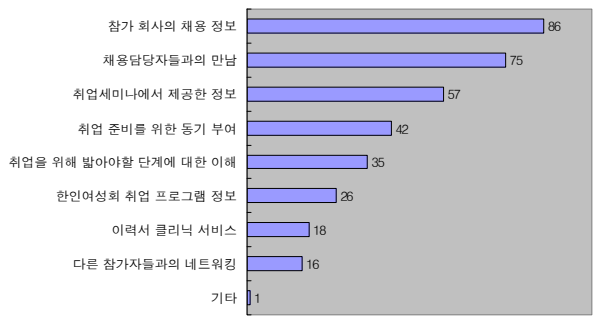
박람회는 한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스욕지역에 있는 노스욕 시빅센터의 메모리얼 홀에서 이루어졌다. 22개 업체가 부스를 설치하고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기회를 마련했으며 총 257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석해 뜨거운 취업 지원 열기를 보여주었다. 또한 생생한 취업 선배들의 경험담을 여러 조언과 함께 전해주는 세미나를 행사 중간 중간 배치해 참가한 예비 취업자들에게 건강한 취업 찾기 노하우와 격려를 전해주는

기회도 되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가서 결과를 보면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도 도움이 되었던 점으로 위의 도표에서 보여 주는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음 박람회에서도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더 많은 기업의 참가, 장소의 협소, 영어권 서비스의 확대, 혹은 영어가 서툰 사람들을 위한 배려, 더 활발한 행사 안내 등등의 제안이 있었다. 취업박람회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9%의 응답자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참가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KCWA 한인여성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취업박람회를 통해 한인 동포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취업 정보와 채용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4월 부터 7월 까지 KCWA는 한인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010년 4, 5, 6, 7월 세 째주 금요일	커리어 네트워킹 클럽
2010년 4월 - 6월	취업과 정착을 위한 컴퓨터 교실 (기초1, 기초2, 중급, MS Office반)
2010년 4월 6일	한인 이민자를 위한 캐나다 직업 탐구 6 경찰관 (RCMP)
2010년 4월 13일	고용보험 혜택 및 고용기준법에 대한 바른 이해
2010년 5월 11일	한인 이민자를 위한 캐나다 직업 탐구 7 유아교육 교사 (ECE)
2010년 5월 12일/ 7월 14일	정부 지원 취업 프로그램 이용 정보 세미나
2010년 5월 18일	캐나다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과 인터뷰 연습
2010년 6월 16일	2010 KCWA 한인여성회 취업박람회
2010년 7월 15일	이민자를 위한 캐나다 직업탐구 8: 간병사 (Personal Support Worker)

취업박람회 내용중 도움이 되었던 사항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확실한 정보의 보고 '캐나다 직업 탐구'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가 취업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시작한 <캐나다 직업 탐구>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꼭 필요한 취업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인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취업의 문을 두드릴 때 부딪치는 어려움은 '캐나다 교육' '캐나다 실무 경험' 그리고 '언어'의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하겠다. 즉 한국에서의 교육과 실무 경험이 이곳에서 빛을 발하기까지 캐나다식 교육과 경력, 언어가 필수 요소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로 경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캐나다에서의 교육과정, 자원 봉사나 실습과정, 언어 구사력이 보강되지 않고는 유아 교육 교사로 일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한인 이민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정보가 부족하기도 했고, 취업에 성공한 분들의 경험을 들을 기회도 많지 않았다. 이민 초반부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했더라면 이곳 캐나다에서도 전문직을 살릴 수 있었을 많은 분들이 개인 비즈니스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에 찾아 온 분의 예를 들어 보겠다. 한국에서 10년 이상의 간호원 경력을 살릴 시도도 하지 않은채 주변의 한인들이 권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8년 동안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파산 선고를 하고 말았다. 반면, 같은 시기에 이민 온 친구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는 일부터 시작, 병원에 취직하여 전문인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자신도 처음부터 그 길을 갔더라면 지금 훨씬 더 만족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 안타까워 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없었던 것을 이내 아쉬워했다.

이민자로서 취업은 분명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캐나다 취업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밀한 전략, 끈기있는 실천이 있으면 한인들의 성실성과 우수성이 빛을 발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KCWA 취업팀에서는 이민자들이 어떻게 장벽을 극복했으며 어떤 과정

을 거쳐 취업하게 되었는지를 경험담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아울러 특정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월 연방 경찰관 (RCMP), 5월 유아교육 교사 (Early Childhood Educator), 7월 간병사(Personal Support Worker)에 관한 취업 경험담과 정보를 제공한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의 평가는 대체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직업군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식 취업 전략과 영어 구사 능력이 필수임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평가해 주었다. KCWA 취업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석자들이 취업에 관한 인식을 바꾸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힘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도록 권하는 것이다. 변화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확실한 정보에 있다고 믿는다.



KCWA의 취업 서비스는 다양한 정보 세미나는 물론 이력서 작성부터, 취업 목표(Career Goal) 정하기, 커리어 지원하기, 취업 프로그램 연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 상담 및 취업 세미나 문의: [오병현 \(employment@kcwa.net\)](mailto:employment@kcwa.net)
·커리어 네트워킹 클럽, 직업탐구 시리즈 문의: [이진영 \(settlement3@kcwa.net\)](mailto:이진영 (settlement3@kcwa.net))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정착 프로그램

♣2010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여름 캠프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신규 이민자 자녀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2010 KCWA 캐나다 한인 여성회 여름 캠프'를 7월 26일~30일까지 H mart 에서 실시했다. 이 캠프는 한국문화와 캐나다문화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신규 이민자 자녀들이 느낄 수 있는 문화, 언어 그리고 교육에서 오는 차이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SK 부터 Gr.8 까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34명 참가자와 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룹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였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로 새로운것을 배우고, 나누고, 교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체험 했으며, 이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처음으로 실시한 '2010 KCWA 여름캠프'는 어린이, 부모님,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S.U.C.C.E.S.S. 와 함께 하는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KCWA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지난 5월 14일, 6월3일 서울에 있는 S.U.C.C.E.S.S. 에서 정착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이민자를 위해 '신규이민자를 위한 정부지원 영어 프로그램' 과 '교육 세미나 - 온타리오 교육 시스템'을 개최하였다. S.U.C.C.E.S.S. 는 신규 이민자의 사전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KCWA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 교육세미나에 참여했던 예비 이민자수는 22명 이었으며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자들은 중요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현지 교육 체계를 이해 할 수 있는 기회와 이민자를 위한 정부지원 영어 프로그램 정보에 매우 만족 하였다. 이제 KCWA의 서비스는 캐나다 내 뿐만 아니라 캐나다 밖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신규이민자 정착영어 교실

KCWA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2010년 7월 첫째주 부터 신규이민자를 대상으로하는 정착영어교실 초급반과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다. 초급반은 매주 수요일 H-Mart에

서 중급반은 매주 목요일 한인여성회에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이민자들에게 기본 생활 영어를 위한 학습정보와 함께 정착에 도움이 되는 캐나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매달 주제를 바꾸어 영어로 제공한다. 영어의 습득을 이민생활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규이민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진행되는 강의를 들으며 영어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무료이동진료 서비스

2010년 7월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Immigration Women's Health Centre와 함께 무료이동진료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인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인여성회가 제공하고 있는 건강서비스의 일환으로 Immigration Women's Health Centre와 협력하여 매년 4-5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여성의료진에 의해 실시되는 상담과 진료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KCWA는 상담과 진료를 위한 통역을 제공하고 검진 결과를 전달받아 참석자들에게 알려준다. 촉진을 통한 유방검사와 자궁 경부암 검사로 이루어져있는 무료이동진료 서비스는 오는 10월과 12월에 한인여성회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Health Card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문화 요리교실

캐나다의 음식과 식재료를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에 접목시켜 캐나다의 음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요리교실이 7월 26일 부터 29일 까지 4일 동안 H-Mart에서 실시되었다. 매일 음식의 주제를 바꾸어 샌드위치, 치즈케익, 피자만두, 스프링롤을 참석자와 시연자가 함께 만들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외에도 캐나다의 식재료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함께 좋은 식재료를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배웠다.

정착 상담 및 세미나 문의:

심수영 (settlement1@kcwa.net), 주선영 (settlement2@kcwa.net),
이진영 (settlement 3@kcwa.net), 백은영 (settlement4@kcwa.net)

프로젝트 안내

Free and Empower Me (FEM)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조현주

Free and Empower Me (FEM) 프로젝트는 한인여성회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16~24세의 한인여성을 위한 여성폭력 예방프로그램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 여성폭력 사건인 위안부 문제와 우리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 문제를 돌아보고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 올바른 이성관계를 정립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제안된 프로그램입니다.

비전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이성관계를 정립하여 건강한 미래의 사회일군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 미션**
- FEM은 한국역사 안에 담겨있는 여성의 강한 함에 관해 교육하고자 합니다.
 - FEM은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여성들이 전인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FEM은 젊은 여성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목표**
-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 여성의 리더십을 키우고 자아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며
 - 여성폭력과 관련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여성폭력 예방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대상: 고등학교(16~18세)와 대학교 (19~24세) 그룹

내용: 건강한 이성관계 이해하기,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사례 연구(위안부, 가정 폭력, 성폭력과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법적 사회적 보호, 심리 치료 과정

진행: 프로젝트 담당자와 외부 인사들에 의해 총 16시간의 훈련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워크샵, 관련 영화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배움을 증진시키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도자 훈련을 마친 학생들이 교회나 학교 등 지역사회에 나아가 그들의 지식을 또래의 친구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 프로그램

십대 소녀들이 건강하고 창조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역량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감과 독특한 정체성을 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젊은 여성들에게 활용 가능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고,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작 콘테스트

FEM에서 제공하는 예술 프로그램의 관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감상문에서 우수작을 선별하여 수상합니다

최종 수련회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의 참가자들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년 프로젝트가 끝나는 최종 수련회를 통해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료지도자 훈련 및 세미나 문의: 조현주(nabi@kcwa.net)

위안부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 하기 위하여, 강제, 집단적으로 또는 기만에 의해 징용 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 받은 여성을 말함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자원 봉사의 맛

박재식

봉사라는 친구와 인연을 맺어 보실래요?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일하기만 하는 그 친구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때론 그 친구처럼 해보는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요?

저는 현재 조지브라운대학에서 호텔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박재식입니다. 아주 건장하지는 않지만 튼실함을 자부하는 청년입니다. 한인여성회와의 인연이 그리 오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할 맛이 나서 더욱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 봉사를 통하여 여러모로 보람도 있었고 제 자신에 대한 성찰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활동의 매력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봉사활동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갖게 해준 한인 여성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자원 봉사는 다른사람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흑자들은 내가 쓰는 것은 내것이요 내가 없는것들은 돈을 주고 그냥 사버리면 그것도 내 것 이라고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봉사를 잘 생각해보면 돈이라는 매개체 없이 네것이요 내것이요 다름이 없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에게로 전달되어 웃음과 정이 넘치는 그야말로 살맛나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봉사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보너스로 긍정적인 에너지와 웃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저와 같은 젊은 또래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친구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여 그돈으로 학비를 충당하거나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황금 같은 젊은 시절을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기 보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래서 막상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댓가가 없기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값진 것들로 훗날 이 시대의 주역이 됨에 필요한 밑바탕을 그럴 충분한 재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속에 30분이라도 봉사를 통하여 각기 다른 시각에서 다른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할수 있는 시간에 대해 헌신해 보라고요.

시간은 언제나 눈치없이 앞으로 가기만 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선택해서 그 시간과의 약속을 해보세요. 30분간이라도 봉사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이에요. 그 30분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으로 보답되는지 알게되실겁니다. 저 또한 지난

취업박람회에 오신 분들에 대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헤쳐나가는 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을 뿐더러 우리들의 작은 손 하나하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뿌듯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봉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여러 가지 맛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수를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용기,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며 나의 잘못을 깨닫는 성숙함, 힘들지만 참고 이겨나가는 나 자신과 싸움의 승리에서 오는 쓰고 매운맛, 아시죠? 쓴 것은 들이키기는 버겁지만 일단 몸에 들어가면 보약이 되고 매운맛은 오묘하게 질리지 않는 중독성이 있다는것을. 봉사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웃게 만드는, 힘든 현 생활속에서도 자신 있게 살아갈수 있도록 만드는 살맛, 이것이 아마 가장 소중한 여러가지 맛 중에 으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봉사활동을 통하여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소중한 쓴맛과 매운맛을 삶의 살맛으로 여기고 그 맛들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자원 봉사는 다른 사람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인생의 소중한 여러가지 맛중에 으뜸

프로그램 이용자의 소리

2010 KCWA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고

TD Canada Trust

다민족으로 구성된 캐나다의 핵심은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은 우리에게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 우리의 목적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재능 있는 인재를 선출하여 고객에게 편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TD은행은 이번 KCWA의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10명 이상의 TD직원들이 이번 박람회에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며 다양한 구직자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TD직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들과 함께 나누었고 TD에서 일하면서 느낀 보람과 자긍심도 또한 나누었다.

이번 KCWA 취업박람회에는 다수의 전망있는 회사들이 참여하여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여진다. 취업박람회에는 기존의 경력을 살리려는 분들, 새로운 분야의 직종을 개척하려는 분, 새롭게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새내기들 등 다양한 구직자들이 참석하였다.

취업박람회에 자원봉사로 참가한 TD 직원들의 말을 인용하면 직원들은 TD부스를 방문한 구직자들과 유용한 시간을 가졌으며 TD에서 어떻게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왜 TD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느냐'는 참가자들의 질문에 많은 직원들이 'TD가 기존에 보여준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활동을 보면서 TD에 직장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 하였다.

KCWA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TD는 지난 수 년 동안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TD가 한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고 지원활동을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캐나다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고 TD는 전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만일 은행이 성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은행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양성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고객을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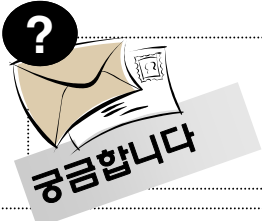
리의 서비스에 반영시켜야 한다. 고객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고객들을 TD에 다시 오게 만드는 방법은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직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인재를 선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다양성은 우리에게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줌으로써, 우리를 보다 강하고,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해 준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편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2010 KCWA 취업박람회 TD은행을 찾은 참가자들

TD의 취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http://www.td.com/hr/index.jsp>



고용보험(EI)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얼마 동안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EI (Employment Insurance)라고 부르는 고용보험은 자영업이 아닌 취업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임금을 받을 때마다 일정액씩 정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I를 정기적으로 낸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 대상자입니다.

EI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상황에 의해 타의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보통 laid-off, 일한 기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다양함, 14주에서 45주)
2.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잠시 쉬는 경우 (임신기간과 출산이후기간 합쳐 최대 50주 혜택)
3.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잠시 쉬는 경우 (최대 15주 혜택) -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

위의 세 가지 경우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조건은 일한 시간입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직장을 다닌 경우나 지난 2년 동안 직장 생활이 없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난 일년 동안 일한 기간이 910시간을 넘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던 분들은 보통 600시간 정도의 일한 시간이 확인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시간에는 차이가 남)

EI로 받게 되는 금액은 본인이 받던 평균 임금의 55%.세세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신청 도움등이 필요하시면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 취업 상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16-340-1234 이메일: employment@kcwa.net

기부금 및 자원봉사 현황

2009년 5월 ~ 8월까지 많은 분들께서 자원봉사, 회원, 후원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기록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Ontario



Bank Financial Group



Status of Women Canada

캐나다 한인 여성회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Tel: 416-340-1234
Fax: 416-340-8114
Website: www.kcwa.net
E-mail: kcwa@kcwa.net

캐나다 한인 여성회 사명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목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 빈곤, 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